

□ 선정평가 종합심사평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사업자 선정 결과 종합심사평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제안서 접수결과, 2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제안업체의 발표와 제안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평가로 선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위원은 <법률>, <학계/연구>, <음악>, <연예>, <공연>의 5개 카테고리에서 각각 3배수를 추출하였고 최종 7인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서류평가는 수행기관 전문성,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 능력, 사업관리 방안 4가지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가 풀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었습니다. 또 노동환경 및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수행기관 전문성과 사업 이해도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심사 비중이 다소 높았습니다. 선정평가 결과는 7인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평가위원은 제안한 2개 업체가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상대적으로 사업 수행능력과 이해도에서 높았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전문가풀 관리 등에서 우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본 조사의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열악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석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